『中國學』第77輯 (2021.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1.77.77.1
pp.001-029. ISSN : 1229-9618

샤오헤이(小黑)의『여정의 종결(結束的旅程)』연구
— '작은 문학(small literature)'의 의의를 중심으로

고 운 선*

【목 차】

1. 들어가며
2. '살림'의 영웅이 되지 못한 말라얀 공산당
3. 화문(華文):
다이글로시아(diglossia), 생존에서 언어의 복수성(複數性)을 향해
4. 나오며

【초록】

샤오헤이(小黑)는 대표적인 1990년대 말레이시아 화인 화문 작가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그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1990년대 대표작이 수록된『여정의 종결』이다. 샤오헤이 작품의 가치는 다종족·다문화 사회라는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여 '화인이라는 집단적 자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은 말레이시아 화인이 물려받은 한정된 문화적 유산을 곧이곧대로 복제하지 않고 재구성하고 전유하여, 국가 공용어가 아닌 소수언어(minor language)인 화문으로 창작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샤오헤이의 자기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되기는, 말레이시아 화문 문학이 기존의 정체성 즉, 상상된 중국 문화 정체성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달리, 화인들의 고통과 역사적 체험을 공유하지만, 그러면서도 보다 개방적인 변혁을 구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일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문학(small literature)' 즉, 뛰어난 거장이 부재하고 문화적 유산이 곤궁한 환경에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pink1208@hanmail.net)

서 창작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의의이다.

【키워드】 샤오헤이, 말라야 공산당, 다이글로시아로서의 화문, 국민형 중학, 작은 문학

1. 들어가며

샤오헤이의 본명은 천치지에(陳奇傑, 1951-현재)로 광둥 차오양(朝陽)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조상을 둔 화인(華人)[1]작가이다. 말레이시아 케다(Kedah) 주 파당 세라이(Padang Serai)에서 태어나 말라야 대학[2] 수학과·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국민형 중학의 교장을 역임했으며, 풀라우 피낭(Pulau Pinang 또는 페낭)의 짓신 독립중학(Jit Sin independent High School)의 교장으로 11년간 재직하다 2019년에 퇴직했다.[3] 1969년부터 작품을 발표하여 소설집 6권, 산문집 5권을 냈다. 1986년 말레이시아 화인문화협회 소설상(大馬華人文化協會小說獎)을 수상한 이래 몇 차례의 각종 수상을 거쳐 2006년 제9회 말레이시아 화문 문학상(馬來西亞華文文學獎)을 받았다.[4]

말레이시아 화인 사회와 대륙 중국에서 1990년대 화인 작가의 대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샤오헤이는 다작으로 인정받은 작가는 아니다. 말레이시아 화인 문학계는 당

---

1) '화인' 개념은 濱下武志,『華僑·華人と中華網』, 岩波書店, 2013, pp.17-44 참고.

2) University of Malaya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있다. 1905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에드워드7세(King Edward Ⅶ) 의과대학과 1928년에 설립된 래플스 컬리지(Raffles College)가 1949년 합병되면서 '말라야 대학'이 되었고, 1962년에 국립대학교가 되었다. 초대 총장은 말라야연방 초대 총리이기도 한 '툰구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이 취임했다. (https://www.um.edu.my/history) '말라야(Malaya)'는 1948년 영국령 말라야연방(Federation of Malaya)에서 따온 것으로, '말레이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비(非)말레이인, 비(非)토착인'을 지칭한다. 토착 말레이인을 지칭하는 영문명 표기는 말레이(Malay)이다. (마하티르 지음, 정호재 외 옮김,『수상이 된 외과의사』, 동아시아, 2012, pp.61-90.)

3) 馬華文學電子圖書館(https://www.mcldl.com/author/read/127),「日新獨中陳奇傑校長退休歡送宴」」,『光明日報』(2019.11.23.). '국민형 중학'과 '독립중학'에 관해서는 제3장을 참고하시오.

4)『黑』(馬來西亞蕉風出版社, 1979),『前夕』(馬來西亞十方出版社, 1990),『悠悠河水』(馬來西亞藝青出版社, 1992),『白水黑山』(馬來西亞華文作家協會会, 1993),『尋人啓事』(馬來西亞彩虹出版社, 1999),『結束的旅程: 小黑小說自選集』(台灣秀威, 2012) 이상 소설집,『玻璃集』(十方出版社, 1983),『一本正經』(馬來西亞红樹林書屋, 1994),『和眼鏡蛇打招呼』(紅樹林書屋, 1996),『擡望眼』(馬來西亞大蔣出版社, 2004),『在路上, 吃得輕浮』(台北釀出版, 2012)은 산문집이다.『光明日報』 언론판 칼럼리스트,『蕉風』 월간의 주편을 역임했으며, 2010년 기준『南洋商報』 부간(副刊)과『中國報』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結束的旅程』, p.4, pp.10-11, 이후 본문 인용시 쪽수만 표기.)

시 정치적 상황상 아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1980년대 후반, 현지에 거주하면서 말라얀 공산당 이야기를 작품화했다는 점, 천편일률적인 1930년대 중국 좌익식 화문 소설의 풍격을 전환시켜 진일보한 기법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5] 중국의 비평가들은 샤오헤이가 대체로 '현실에 관심'을 둔 창작 경향과 방법을 운용한다는 점, 그리고 작품 속 신구 세대 화인의 갈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화인의 역사와 현실은 물론 중국문화의 현실과 이상에 관해 생각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6]

타이완에서 출판된『여정의 종결』(총19편 수록)에는 샤오헤이가 직접 선별한 단편소설들이 창작 연도에 따라 수록되어 있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 창작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 초기작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양이)와 새와 개미와 인간((猫)和小鳥和螞蟻和人)」(1979,『黑』수록)은 고양이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보이는 머리 없는 새의 사체에 개미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인간이 이것을 불에 던져 버리고 지상에 남은 개미집을 발로 뭉개버린다는 시도 아닌 짧은 두 줄의 글귀가 전부인 작품이다.「어둠(黑)」(1979,『黑』수록)은 도시에서 살던 남녀가 산속 작은 마을로 이사 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칠흑 같은 정전 속에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을 다루고 있다.「돈벌이 외(謀之外)」(1978,『黑』수록)는 산속 마을에서 자전거 가게를 하는 푸안(福安)의 심리 묘사를 통해 도농 간 격차가 심했던 1970년대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인간쥐(人鼠)」(창작 연대 미상,『尋人啓事』수록)는 구식 잡화점을 운영하는 톈바오(天寶)가 불심 때문에 살육을 금지하는 모친과 가게에 돌아다니는 쥐를 잡아야지만 밤을 허락하는 아내 사이에서 겪게 되는 살육과 효심·살육과 밤일 사이에서의 갈등을 통해, 인간 본능의 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잃어버린 진주(失落了珍珠)」(1979,『尋人啓事』수록)는 한 부부가 딸 아이와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아내가 흥정하는 동안 잠깐 아이와 놀아주던 남편이 아내를 찾을 때 어디론가 사라진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참을 찾다 근처 극장에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암전된 극장처럼 캄캄하다'는 말로 마무리된다.「크리스마스 선물(聖誕禮物)」(1984,『尋人啓事』수록)은 어떤 젊은 부부가 딸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신화·전설이나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관해서도 자주 얘기해 줬는데, 산타클로스

5) 潘碧华,「論小黑小說的禁忌書寫與歷史建構」,『馬華文學批評大系: 潘碧華』, 元智大學中國語文學系, 2019, pp.60-90,「眞實的虛構」,『結束的旅程』, pp.12-17.

6) 孫彦莊, 許文榮, 郭建軍, 彭志恒, 朱崇科 등이 해당 중국학자들인데, 자세한 서지는 朱崇科,「論馬華作家小黑作品中的馬華話語」,『文藝爭鳴』, 2017.8, p.131을 참고. 이후 논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관점들만 다루겠다.

가 실재한다고 믿었던 딸이 학교에 진학한 뒤 그 일로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와서 한바탕 난리가 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마지막에 우는 아이를 달래주던 그 순간, 창가에 순록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가 지나가는 것을 온 가족이 지켜보는 환상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된다(pp.29-74). 샤오헤이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시절이나 감각·믿음에 대한 아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작품이 1999년에야 모음집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독자와 평단의 호평을 받은 대표 작품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 거꾸로 초기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여정의 종결』에 수록된 총19편 중 샤오헤이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1990년대 대표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그가 화인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정체성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미약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다원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화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샤오헤이 작품의 가치는 말레이시아 관방에 대한 대항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화인의 국가적·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다종족·다문화 사회라는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여 '화인이라는 집단적 자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은 말레이시아 화인이 물려받은 한정된 문화적 유산을 재구성하고 전유하여, 국가 공용어가 아닌 소수언어(minor language)[7]인 화문으로 창작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샤오헤이의 자기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되기는, 말레이시아 화문 문학이 기존의 정체성 즉, 상상된 중국 문화 정체성에 자신을 동일시[8]하는 것과 달리, 화인들의 고통과 역사적 체험을 공유하지만, 그러면서도 보다 개방적인 변혁을 구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일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인 화문 문학의 가능성을 샤오헤이의 대표작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

7) 소수언어란, 소수민족이 모어(mother tongue;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에 익힘으로써 무자각인 채로 자신 속에 생겨버리는 언어)로 삼는 언어를 지칭한다. 크게 ①정복된 선주민(일본 아이누족의 사례), ②식민지에서 지배받는 원래 주민(일제 강점기 조선의 사례), ③국민국가에 통합된 지역적 소수민족, ④조국에서 쫓겨난 디아스포라 민족(동유럽계 유대인의 이디시어, 카프카의 사례), ⑤비정주형 생활 스타일을 가진 소수민족(유럽의 집시의 사례), ⑥선진국에 이주한 이민 노동자(미국의 남아메리카 이주민의 사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미우라 노부타카 외 엮음, 이연숙 외 옮김,『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0, pp.20-21.) 말레이시아에서 화어는 ③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어' 개념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의 에스닉과 일치하지 않는다.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모어는 '일본어'(한국어는 '모국어')이며(서경식,『언어의 감옥에서』, 돌베개, 2011, pp.35-76), 아프리카인들의 모어는 본토의 부족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제3국의 언어'가 될 수 있다.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p.36.)

8) 史書美,『反離散』, 台北: 聯經出版, 2017, p. 172.

2. '살림'의 영웅이 되지 못한 말라얀 공산당

샤오헤이의 작품 중 너무 과감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일으킨 작품은「밀림(樹林)」(1985,『前夕』수록)이다. 이 작품은 어린 남매의 부모가, 해가 지면 캄캄해지고 처량한 기운이 감도는 밀림으로, 밀림 바깥으로도 밀림밖에 없는 산속으로 차례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간단한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테러리스트'였던 말라얀 공산당(Malayan Communist Party)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평화조약(1989년 12월 2일)을 맺기도 전에, 말라얀 공산당의 활약을 전해 듣고 성장한 세대에 속하는 작가가 공개적인 지면에서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화인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9]

말라얀 공산당은 말레이시아 화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다. 1930년에 결성된 말라얀 공산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라얀 인민항일군(Malayan Peoples' Anti-Japanese Army)으로서 영국군을 도와 공을 세워 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1948년 영국 식민지 정부의 관할 하에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이 수립되자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말라얀 민족해방군(Malayan National Liberation Army)'으로서 무력투쟁에 나섰다. 이에 영국 식민지 정부는 '긴급조치(법령 'E17')'를 발동하여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 작전에 돌입하는 한편, 브릭스 플랜(Briggs Plan)을 추진하여 말레이 반도 전역에 수백 개의 '화인 강제 격리구역(新村)'을 세우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화인들을 지정된 지역으로 옮겼다. 철조망으로 둘러서 군경을 주둔시키고 초소를 세워 출입은 규정된 시간에만 하도록 강제했으며, 혐의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혹하게 징벌했다. 이로 인해 촌민을 통한 후방 보급을 잃은 말라얀 공산당은 기아에 시달리며 오직 밀림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다. 1960년 긴급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철조망과 초소도 제거되었지만, 당시 중하층 노동자·농민 계급에 속했던 화인들은 오랫동안 낙

9) 말라얀 공산당 지도부의 자서전은 2003년(총서기 친펭(Chin Peng, 陳平(본명은 王文華), 1924-2013), "My Side of History")을 기점으로 2005년(張佐, 1924-1997, 화인),『我的半世紀: 張佐回憶錄』; 1988년에 완성되었지만 7년 뒤 출판), 2006년(라시드 마이딘(Rashid Maidin, 1917-2006, 말레이인), "The memoirs of Rashid Maidin: From armed struggle to Peace") 출판되기 시작했다. 반면 말라얀 공산당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은 샤오헤이를 비롯하여 량팡(梁放, 1953-현재, 보르네오 사라왁 출신, 2006년 퇴직 전까지 사라왁 수리관개국(水利灌溉局)에서 재직)의「슬레이트 지붕 위의 달빛(鋅片屋頂上的月光)」(1986)과 같이 일찍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엽부터는 장구이싱(張貴興, 1956-현재, 보르네오 사라왁 출신 타이완 작가)의『코끼리떼(群象)』(1998)와 같은 장편 서사까지 등장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화문 신문인『신추일보(Sin Chew Daily, 星洲日報)』가 말라얀 공산당을 기사로서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도 1998년에야 가능했다. (鍾怡雯,「歷史的反面與裂縫: 馬共書寫的問題研究」,『馬華文學史與浪漫傳統』,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9, p.4, pp.24-25, 黃錦樹,『馬華小文學』, 麥田出版, 2015, p.360.)

후된 곳에서 빈곤하게 살아야 했다.[10]

『여정의 종결』에 수록된 말라얀 공산당에 관한 작품은 「밀림」 외에, 「가랑비 내리던 날(細雨紛紛)」(1990.2), 「흰 물결, 검은 산(白水黑山)」(1991.8), 「연단기(煉丹記)」(창작 연대 미상), 「여정의 종결」(2006)이 있는데, 그중 「흰 물결, 검은 산」은 샤오헤이의 최초이자 마지막 중편 소설로, 평단에서 회자되는 대표작이다. 「연단기」와 「여정의 종결」은 그 후속편에 속한다. 1989년 샤오헤이가 일 때문에 페락(Perak) 주 시티아완(Sitiawan) 인근의 작은 마을로 이사한 바로 그해에 평화회담이 열려 반세기에 이르는 말라얀 공산당의 무장투쟁이 종결되었다. 또한 시티아완은 말라얀 공산당의 총서기인 친펭의 출생지였다. 샤오헤이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치 공산당원의 흔적이라도 찾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화인 강제 격리구역'을 자주 다녔으며, 그들의 활동 근거지 중 하나로 알려진 동굴을 살펴보며 큰 떨림을 느꼈다고 한다.[11]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은 샤오헤이가 말라얀 공산당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떨림이 말라얀 공산당의 수난을 화인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동일시하거나 영웅시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오늘 만남으로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소. 20년의 세월이 결국 이렇게 지나가 버리다니! 20년 전 내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소. …… 20년 전에 내가 몰래 샹차오 마을(香草鎭)로 가서 당신과 아들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었소. 오늘 언(恩)이가 나에게 따져 물은 행동은 실로 무례하기 그지 없었소. 하지만 나도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소. …… 당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소. 극장에서 관람하고 있는 배신자 3명을 제거하는 것. 공교롭게 언이가 그때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오. 우리가 간신히 기회를 포착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언이가 당할 뻔했소. 다행히 언이가 극장을 나가는 바람에, 내가 폭약을 작동시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소. 그 무리를 폭발로 죽인 것은, 이상을 위해 헌신한 우리 수많은 형제를 대신한 복수였소. 재난이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이른 것은 진실로 바라던 바가 아니었소. ……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41년의 세월을 걸어 왔지만 아직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점이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소. 우리

10) 마하티르는 서구인들이 이것을 '게토'의 일종 또는 '강제수용소'로 보더라도 오히려 당당하다. 당시 정부가 말라얀 공산당의 수탈과 폭력으로부터 중국계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해 준 것이며, 이제 그곳은 번성했고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이다. (마하티르 지음, 정호재 외 옮김, 『수상이 된 외과의사』(동아시아, 2012, p.161.) 마하티르는 100여 개의 '뉴 빌리지(新村)'가 있었다고 했지만, 화인들의 연구에 의하면 1954년 기준 전국에 480개가 있었다. 1990대에 이르러 명칭이 '캄퐁(kampung; 작은 마을)'으로 바뀌었다. (何啓良外編, 『馬來西亞華人史新編』(第2冊), 馬來西亞中華大會堂總會出版, 1998, p.351, p.368.)

11) 林春美, 「小黑的歷史修辭與小說敍事」, 『華文文學』, 總第119期, 2013.6, p.33.

> 가 조약을 맺은 것은 무장투쟁을 해제한다는 것, 무기를 없애버린다는 말이었소. 우리는 결코 사상의 핵심을 버린다고 답하지 않았소. 한 사람의 이상은 일평생의 사업인데 어찌 조약서 1장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소? (p.295.)

「가랑비 내리던 날」의 작중 화자인 '주청언(朱承恩)'은 자신의 이상을 위해 가족을 버린, 남겨진 가족들로 하여금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한 아버지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청언'의 아버지는 동족인 화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지지해줄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청언'은 그 열악한 시절에도 당시 중국이나 타이완 사회와 비교해 볼 때, 화인들이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청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잠시 들린 극장에서, 뜬금없는 폭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편이 된 친구 쉐얼(雪兒)의 사체를 목격한 후, 부친의 투쟁 방식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오히려 민심을 돌아서게 만든다고 생각했다.(pp. 274-275, p.287, pp.292-293)

그래서 아들 '주청언'은 죽은 줄 알았던 부친을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대의멸친(大義滅親)'의 정당성에 대해 따져 물었던 것이다. 상기 인용문은 이러한 아들의 반응에 대한 부친 '주샤옌(朱夏炎)'의 답신이다. 이 답신을 통해, '주샤옌'이 오랜 밀림 생활 동안 혁명 동지와 결혼하여 어린 자식까지 둬서, 아내와 아들 청언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편지를 끝으로 작품은 마무리가 된다.

말라얀 공산당이 대외적으로 화인 중심적인 조직이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12] 그 내부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가에 관해서는 더 많은 자료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중 인물 '주샤옌'이 언급한 '조직 내 배신자' 문제에 대한 말라얀 공산당원들의 민감한 반응은, 초대 총서기 라이 텍(Lai Teck, 1910년 - ?)의 배신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3] 이후 2대 총서기 친펑(당시 23세)이 선출되었지만, 사실 지도

---

12) 말라얀 공산당과 정부의 회담은 1955년에도 있었다. 북말레이시아 케다 주 바링 관립 영문학교에서 진행된 '바링회담(Baling Talks)'에서, 말라얀 공산당은 '공산당'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영국 식민지 정부 및 툰구 압둘 라만의 '무조건 투항' 조건과 맞지 않아 결렬되었다.(「順光: 華玲會談破裂主因, 馬共拒無條件投降」,『星洲网』(2013.09.17.), https://www.sinchew.com.my/?p=2158764) 그중 1960년대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정착하지 못한 세력이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공산당이 되기도 했으며, 더 근본적인 것은 2대 총서기인 친펑이 1962-1989년 내내 중국 남부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말라얀 공산당은 건당 이래 줄곧 화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黃錦樹,『馬華小文學』, 麥田出版, 2015, p.338.)

13) 중국과 베트남 혼혈 출신으로 국적은 베트남이다. 1920년대 베트남 공산당 지역구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프랑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 프랑스 식민지 정부의 밀정 노릇을 하다 신분이 발각되자 프랑스 정부가 라이 텍을 영국으로 이송시켰고, 영국은 그를 비밀요원으로 활용했다. 광저우(廣州)와 홍콩에서 훈련을 받은 뒤 싱가포르로 보내졌고, 1934년 싱가포르

자가 국경 밖 투쟁을 시작하면서 말라얀 공산당 내부는 투쟁 목적·투쟁 방식에서 분열을 겪게 되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말라얀 공산당 내부의 '숙청' 사건은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와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의 회고록에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떤 문제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가족과 떨어져 기아에 시달리며 투쟁해야 했던 유격대원들의 극심한 심적 고통과 대의멸친의 무장투쟁이 무고한 희생자를 얼마나 양산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다.[14]

어떻게 보면 무장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를 떠났거나 병사 계급에 속한 당원들, 그리고 당원이었지만 작가이기도 했던 사람의 글을 찾아보지 않는 한 말라얀 공산당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조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때문에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자연스럽게 항일운동에 동참했으며, 식민 지배자인 영국의 통치하에서 근대적 산업·경제 체제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 사상에 동조하기도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 병사의 자격으로 말라얀 공산당의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지도부와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낯선 땅에서 여공으로 힘든 이주민 삶을 견뎌야 했던 어느 화인 여성의 아들은 자연스레 말라얀 공산당에 투신했지만, 적의 손이 아닌 당내 숙청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며느리까지 암살당하게 되자 결국 이 여성은 손주를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했다. 또 다른 예로, 당시 빈한한 가정환경 때문에 교

를 거쳐 말라얀 공산당으로 잠입했으며, 1938년 초대 총서기가 되었다. 1947년 당내 대량의 자금을 들고 도주하여 싱가포르· 홍콩을 전전하다 태국에서 태국공산당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陳劍, 「冷戰與東南亞共運的興衰: 馬共革命沈浮錄」, 『冷戰國際史研究』, 2009, p.351.)

14) 말라얀 공산당이 1955년 이후 해산하지 않고 다시 밀림으로 가게 된 배후에 중국공산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阿成(單汝洪, 화인), 『我肩負的使命: 馬共中央政治委員阿成回憶錄之四』, 吉隆坡: 21世紀, 2006, pp.166-167, 鍾怡雯, 「歷史的反面與裂縫: 馬共書寫的問題研究」, p.29 재인용), 친펭은 말라얀 공산당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국 식민지 정부가 퍼트린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라 일축했다. (Chin Peng, "My Side of History", 鍾怡雯, 「歷史的反面與裂縫: 馬共書寫的問題研究」, p.27 재인용) 친펭의 이러한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1940년대 당시 소련은 동남아시아 공산당의 활동은 중국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추측과 달리 말라얀 공산당과 소련은 관계가 없다. 하지만 1947년 친펭은 2대 총서기로 선출된 후 홍콩으로 가서 중국공산당 남방국 홍콩 주재 책임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말라얀 공산당 조직 자체가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부 = 말라얀 공산당', '당 대 당의 교류'라는 평가는 부정확하지만, 친펭을 비롯한 말라얀 공산당 간부들과 중국공산당은 이후부터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문혁 시기 친펭은 마오쩌둥과도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아청(阿成) 또한 말라얀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서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조직부 부부장을 역임했다. (于洪君, 「馬來亞共産黨及其武裝鬪爭的興起與沈寂」,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15年第2期, pp.46-48.)

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어느 화인 여성은 이론적 사상이 아니라 혁명의 열정과 낭만에 동조하여 공산당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직 내 '숙청'은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한 일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15] 한편, 당원이지만 작가이기도 했던 진즈망(金枝芒)은『기아(飢餓)』(1950년 말 창작, 2008년 출판)라는 소설을 통해, 오랜 세월 굶주림에 시달리다 사망한 동지들과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을 혁명에 대한 추도사를 남겼다. 진즈망의 작품에 의하면, 밀림 속 유격대원들은 포위 공격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생존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으며, 조직 내 성폭행 피해를 감내해야 했음은 물론, 대원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숙청 사건들로 얼룩진 세월을 살아야 했다. 진즈망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 한다는 리얼리즘 정신에 충실하게, 말라얀 공산당 내부의 시각에서 말라얀 공산당 역사의 난감함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생생하게 재현·증언했다고 할 수 있다.[16]

그렇다면, 반식민 투쟁에 직접 투신한 자, 내부자라는 점을 특권으로 내세워 지도자적 신분을 과시하며 은연중에 화인 종족주의 또는 말레이 종족주의를 드러내거나 공산주의식 송가와 독백을 표출하는 기록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적과 화염에 휩싸여 싸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17]이었다는 어떤 인간적인 소회에 우리의 시선을 더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문혁 종결 이후 중국에서도 수많은 '상흔문학'이 등장했지만, '대의멸친'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의 답으로 제시되는 문제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드물다.『춘추(春秋)』에 근거하면, 요(堯)·순(舜)과 같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형제에게 양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중도(中道)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단지 흉내일 뿐이다. 또한 공자는 군신의 도리를 다하고자 사심 없이 자식까지 희생시킨 경우, 의(義)의 본질에 속하는 인정(仁情)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반쪽에 불과한 편벽한 의(義)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순임금의 경우, 아비가 살인을 하면 천하를 버리고 그 아비를 업고 은둔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 은악한 부모의 가치가 무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저울대(權)란,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하여 적중한 것을 찾는 과정이다. 공공의 이익과 가족을 지키는 두 가지 상도(常道)가 상충할 경우, 반드시 그 시점에서 나의 지위와 시대적·상황적 경우를 감안한 변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즉, 대

15) 鍾怡雯,「歷史的反面與裂縫: 馬共書寫的問題研究」,『馬華文學史與浪漫傳統』,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9, pp. 3-58.
16) 黃錦樹,『馬華小文學』, 麥田出版, 2015, pp.352-453.
17) 惠斌,「我怎樣在敵人的刺刀下生活」, p.337, 鍾怡雯,「歷史的反面與裂縫: 馬共書寫的問題研究」,『馬華文學史與浪漫傳統』,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9, pp.44-45 재인용.

의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관계인 부모와 형제 및 인척의 명예와 목숨을 돌보지 못했다면, 후일에라도 친친(親親)을 보완하여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다.[18] 그렇다면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하고 자주적이고 계급 평등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행한 말라얀 공산당의 무력투쟁이 화인들의 삶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함께 고려해야지만, 그들의 행위가 '대의멸친'을 실천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가랑비 내리던 날」의 작중 화자이자 아들인 '주청언'이 아버지 세대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태도가 민족의 사명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시 화인들은 관방 정부는 물론 말라얀 공산당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식민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하고자 했던 말라얀 공산당의 무력투쟁이 정서적으로 어떤 통쾌함과 희망보다 눈물과 고통을 안겨준 셈이다. 화인들이 말라얀 공산당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19] 그래서 샤오헤이는 멸친까지 감행하며 선택한 그들의 '이상'이란 것을, '항상 안개로 둘러싸인 높은 산꼭대기' 같아서 '쳐다보고 있으면 떨칠 수 없는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빽빽하고 검은 밀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결코 문학의 수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 없다. 촌민들은 숭고한 정신이라 수군대지만 사실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이기만 했던 것이다.[20]

공산당 측은 과거에 발생한 무고한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2000년대 이후 회고록을 발표하기 위해 각종 관방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보다 점조직으로 활동했던 유격대원들의 생사와 상처는 물론, 자신들을 돕기 위해 각종 수난을 견뎌야 했던 화인들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투쟁 방식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천대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인들의 입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공교롭게도 총서기의 표제어대로 '우리 쪽(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라얀 공산당 간부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인다.[21] 인민의 염원과 지지를 돌보지

---

18) 안춘분, 「孔子의 『春秋』大義思想 연구」, 성균관대 유학과 박사논문, 2015, pp.119-141. 공자는 춘추시대의 '대의멸친'한 위정자들이 완전하게 대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즉 요·순·주공의 대의멸친은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의를 실천하면서도 친친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춘추시대의 위정자들은 결과적으로 친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의의 완전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안춘분은 두 시대의 대의멸친이 다름을 알리기 위해 공자가 『春秋』를 집필했다고 본다.

19) 潘婉明, 「一個新村, 一種華人? ——重建馬來(西)華人新村的集體回憶」, 國立暨南國際大學碩士論文, 2001, pp.154-157.

20) 「밀림」, 「가랑비 내리던 날」, 「흰 물결, 검은 산」, 「여정의 종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밀림의 공통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화인 후예들이 이 치열한 (그들의) 역사를 거짓말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結束的旅程』, p.301, p.365)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못한 혁명가는 최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샤오헤이는 문제작「흰 물결, 검은 산」,「연단기」,「여정의 종결」에서 더 논란이 되는 결론을 보여준다.

> 양우(楊武)는 횃불을 천리안(陳立安)에게 넘겨 주고, 행장을 가슴 앞으로 동여매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형은 맨 뒤에 서. 내가 앞쪽 상황을 잘 아니까 나를 따라와." 표면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가 바로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천리안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것이 양우를 본 마지막일 것이라고는. 이 지난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회한과 비통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했다. 당시 어째서 양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에 들어가겠다고 답을 했던 것일까?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에 안배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묵묵하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 그는 결국 유일한 생환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런 일인가!『흰 물결·검은 산(白水·黑山)』제10장 (p.360.)

> 둘째 외삼촌이 돌아왔다. 아니다. 둘째 외삼촌은 출국했다가 남양으로 방문한 해외로 이주한 형제이다. 이것은 40년 동안 보기 드문 정말 대사건이었다. 큰 외삼촌의 호화스런 디젤 메르세데스 벤츠의 문이 열리자 점잖고 부귀한 풍채에 화색이 붉고 윤기가 도는 얼굴,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부친이 밤낮으로 그리워한 일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미 장렬하게 희생되었다고 오해한 둘째 외삼촌임을 알아봤다.
>
> …… "변한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구생(求生) 방법이지." 둘째 삼촌은 생각해온 바를 말한 것 같았다. "형도 변했소" 부친이 돌연 말했다. "응?" 둘째 삼촌이 부친을 바라봤다. "보아하니 형은 훨씬 더 젊어졌어요. 전혀 풍파를 겪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인생도 더 의미가 있거든." "둘째 형" 부친은 불렀다가 또 멈췄다. …… "지금 어떤 기분이 드나요?" 둘째 외삼촌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재회는 아주 기쁜 일이지. 우리 모두 진보 중이잖아." 부친은 큰일을 하려고 결심한 듯했다. "내일 내가 형을 데리고 산에 가려 해요. 카부룽(卡布隆) 폭포가 개방되었어요. 산과 들판 가득 불같은 밀림이 아주 찬란해요. 아주 장관이랍니다." 둘째 삼촌은 다소 놀란 듯 말했다. "나는 내일 아침 8시 반 비행기를 타야 해. 네 몸도 쇠약하니 다시는 산에 가지 마려무나." 부친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

21) 鍾怡雯,「歷史的反面與裂縫: 馬共書寫的問題研究」,『馬華文學史與浪漫傳統』,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9, pp.12-13. 198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마자 말라얀 공산당 내부에서 친펭에게 우리 쪽의 회고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펭의 회고록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자료를 섭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혁명의 대의'를 반추했다기보다 주류 역사에서 잊혀질까 봐,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역사 해석권을 영원히 확보하지 못할까 봐 하는 문제가 자기에게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는 이 문제를 중국문화의 이상(대의멸친)과 현실의 간극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彭志恒,「談小黑的小說」,『台港與海外華文文學評論和研究』, 1996年第3期, p.34.)

> 농담한 것이니 걱정마세요. 내일 바로 광저우로 가나요?" 둘째 삼촌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오랜 친구 몇 명을 만나러 수도로 갈 거야. 개방 이후 국면이 달라졌어. 모두 내륙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나 같은 어문 연구에 종사하는 늙은이를 불러 참고하려는 거지." (pp.371-372, pp.374-375.)

「흰 물결, 검은 산」의 작중 화자인 '나'의 직업은 작가이며 말라얀 공산당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다. 그의 소설 속 공산당원 형상은 '나'의 둘째 외삼촌 양우와 자신의 아버지 천리안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작중 화자가 창작한 소설 내용과 작중 화자의 실제 가족 이야기를 번갈아 보여주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외가는 물론 화인 사회에서 전설 속 영웅처럼 묘사되는 밀림 속 유격대원인 둘째 외삼촌 양우와 달리, 첫째 외삼촌 양원(楊文)은 수완이 좋기도 했지만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잘 아는 세속적인 인간이었다. '나'의 아버지 천리안은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평범한 삶을 뒤로 하고 밀림으로 들어간 양우의 호연지기에 감복하여, 평생 그의 뜻을 받들며 살아왔다. 그래서 일본군 점령기에 동족을 고발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바이허우(白猴)의 딸을 첩으로 들이면서까지 경제적·사회적 입지를 다진 큰 외삼촌과는 아예 발길을 끊고 살았다. 작중 화자 '나'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신념을 추구하며 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얻는 것은 아니며, 나쁜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천하에 버려지지는 않는 묘한 인간의 삶에 대한 소회를 풀어 놓는다(p.346).

작중 화자인 '나'는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강골 기질을 유지하며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빽빽한 나무로 가득 찬 검은 밀림을 벗 삼아 지내는 아버지보다는, 설사 매국노 짓을 한 이력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필요에 따라 야합하여 이를 통해 양씨 가문을 번창시킨 호색한 큰 외삼촌을 인간적으로 더 좋아했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작중 화자의 소설 속 이야기이다. 우리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 이야기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다. 하지만 소설과 달리 작중 화자가 맞이한 현실은, 희생된 줄 알았던 둘째 외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대학교수가 되어 가족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도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을 외양을 하고서 말이다.[22] 현실의 둘째 외삼촌이 맥락 없이 갑자기 등장한 두 번째 인용문 부분은, 중국의 평론가로부터 화인 작가의 어쩔 수 없는 문학적 한계로 지적받기도 한다. 샤오헤이는 작가로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지만, '썩 괜찮은 구상을 해내는 작가' 정도라는 것이다.[23] 어느 정도 샤오헤이 창작력의

22) 두 번째 인용문 속 둘째 외삼촌 형상은 1989년 TV상에 등장한 친펭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때 샤오헤이는 베일에 싸여 있던 친펭의 실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林春美, 「小黑的歷史修辭與小說敍事」, 『華文文學』, 總第119期, 2013.6, p.36.)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다. 하지만 본고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시간이 흘러 몇 년 뒤에 발표한 후속편「연단기」와「여정의 종결」에서도 일관되게 공산당원을 부정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었다.

「연단기」는 작은 마을에서 반평생을 산 예순을 넘어 일흔이 되어가는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문제는 말라얀 공산당에 참여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현재 최대의 염원이 중국에서 온 젊은 아가씨에게 방중술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풍자성이 강한 작품이지만, 한국의 독자들은「흰 물결, 검은 산」의 첫째 외삼촌 양원의 축첩 과정과 함께 불필요하게 장황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표한 마지막 말라얀 공산당 소재의 작품인「여정의 종결」에도「흰 물결, 검은 산」의 양우와 같은 당원이 등장(작중 화자의 셋째 삼촌)하는데, 그 또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잠시 관광 온 손님처럼 "다행히 모레 돌아갈 거야. 집에 있는 손자들이 어떤가 몰라서 말야" 라는 말을 남기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목으로 마무리된다.[24]

샤오헤이는 왜 말라얀 공산당원의 중국으로의 귀환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것일까? 왜 독자의 혁명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앞서 이입한 감정(첫 번째 인용문)에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일까? 문학적 완성도가 낮다는 평가까지 받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제3국의 독자도 일부 말레이시아 화인 사회의 반응처럼, 말레이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인 '말라얀 공산당은 테러리스트'라는 편견을 화인 작가들이 나서서 강화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고[25] 해야 할 것인가?

「흰 물결, 검은 산」의 작중 화자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념을 유지한 부친보다 세속적인 큰 외삼촌 편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세속적인 인간이 단순히 평범한 화인들의 욕망을 재현해서라기보다 이런 세속적 인간과 보통의 화인들이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작중 화자 또한 큰 외삼촌의 결점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영웅시되는 둘째 외삼촌보다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다. 원래 영웅이 아닌 진짜 사람들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신념을 지켜온 부친조차 둘째 외삼촌과 재회한 뒤에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을 정도이니 말이다.

원래 혼란과 암울이 지배하는 시공간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최상위 가치로 삼는 '힘의 영웅'이 등장하고 신화화된다.[26] 이러한 '힘의 영웅'을 민족의 영웅으로 앞세우

---

23) 欽鴻,「別出心裁的嘗試: 讀小黑的小說」,『華文文學』, 1994.2, p.54.

24) 린춘메이의 경우, 이 대목을 통해 말라얀 공산당의 혁명은 결국 화인 중심적인 에스닉-민족주의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계속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林春美,「小黑的歷史修辭與小說敍事」,『華文文學』, 總第119期, 2013.6, p.38.)

25) 林春美,「誰方的歷史: 黎紫書的「希斯德里」」,『中外文學』, 第36卷第1期, 2007, p.199, p.212.

26) 함규진,「일제강점기 전후의 영웅 담론: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는 순간 '자아 대 타자'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특정 집단의 영웅, 즉 '나의 영웅'이 그 반대편에 있는 타자에게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영웅은 사회에 이로울 수도, 반대로 파괴적일 수도 있다.[27] 말라얀 공산당의 투쟁의 이유가 샤오헤이 소설이 보여주듯 모두 허위는 아니었겠지만, 말레이시아 관방에게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논리 구조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힘의 영웅'은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숭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가랑비 내리던 날」에서처럼 거의 항상 폭력의 결과로서 '죽임'을 그 흔적으로 남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희생)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무시한 채 영웅이 되라는 가르침으로 와전되게 된다.[28] 말라얀 공산당이 고뇌 없이 실천한 그 '대의멸친' 말이다. 말라얀 공산당은 화인들의 '집단적 자아'가 투영된 신화 속 영웅처럼 기억되고 싶었겠지만, 샤오헤이의 작품에서 말라얀 공산당이 부정적으로 재구성된 것은, 삶에 대한 희망보다 '고통과 갈등'을 남겨 결론적으로 화인들에게 '살림'의 영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흰 물결, 검은 산」의 양우와 「여정의 종결」의 셋째 삼촌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중국으로 가는 것도, 평론가들의 지적처럼 화인 중심적 종족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말라얀 공산당이 인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 채, 결국 보통 사람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즉, 화인 후예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샤오헤이가 말라얀 공산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은, 영웅적 행동을 수행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죽임'의 주체가 아닌 '살림'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치연구』, 제28권3호, 2019, p.35. 이 논문에서 '영웅'이라는 개념은 근대 시기 서양의 발명품인 'nation'이라는 개념의 수용과 함께 아시아에 들어왔다고 본다.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전 시기에는 군주에 대한 '충성', '충신'의 개념이었지 군주와 구별되는 민심을 얻는 인물은 군주의 지배 논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 영웅' 형상과는 다르다고 본다.

27) Franco, Z. E. et al., "Heroism Research: A Review of Theories, Methods, Challenges, and Trend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58 No.4, SAGE Publications, 2018, p.384. 이영준·이황, 「한국사회에서 영웅의 왜곡과 (재)소환」,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5호, 2020, p.6 재인용.

28) 남민우, 「전후 박인환 시의 영웅주의에 대한 성찰과 지양 양상 연구」, 『국어교육』, 제150권, 2015, p.131.

3. 화문(華文): 다이글로시아(diglossia)[29], 생존에서 언어의 복수성(複數性)을 향해

샤오헤이는 소학·중학 과정(한국의 중·고교과정)을 마친 뒤 잠시 화문소학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중학 과정에서의 우수한 성적 덕분에 말라야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과 교육학을 전공할 수 있었다.[30] 샤오헤이가 말레이시아의 다른 에스닉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화인임을 반증하는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많지만,[31] 샤오헤이의 이러한 이력을 한국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다양한 외국어 구사 능력처럼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샤오헤이 나이대의 화인이 말레이시아 특유의 교육제도인 국민중학, 국민형 중학, 독립중학 세 종류의 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는 말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화인들이 대를 이어 '화문'을 사용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국에서 바라보듯 중국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32] 말레이시아에서 '화문'은 국민의 약 20%(2015년 기준, 말레이인 61.8%, 화인 21.4%, 인도인 6.4%, 기타 0.9%)를 차지하는 화인들의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진정한 다원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혈통 중심적 종족주의 정서가 각축을 벌이는 영역이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소환되는 표심 공략용 정책의 최첨단에 있다.

---

29) 사회언어학자 퍼거슨(Charles Ferguson)이 제안한 용어로, 한 언어 이상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언어는 고위 변종(variety)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언어들은 저위 변종으로 비공식적으로 주로 입말로 사용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공적·사적 상황에 따라 지배 언어와 모어로 나누어 사용한다는 다언어의 '소극적 공존'을 '다이글로시아'라고 한다. (미우라 노부타카 외 역음, 이연숙 외 옮김,『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p.18.)

30) 「[老師心故事] 执教鞭摇笔杆, 陈奇杰以心待人」,『東方ONLINE』(2019.01.29.) 참고.

31)『여정의 종결』에 수록된 작품들로는,「사양, 오! 사양(Sayang, Oh! Sayang)」(창작 연대 미상,『悠悠河水』수록),「남겨진 진주(遺珠)」(1988.3,『前夕』수록),「화원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如何建立一座花園的夢)」(창작 연대 미상,『悠悠河水』수록)가 있다.「사양, 오! 사양」은 화인이 기르는 개 '사양'을 돌보는 하층 말레이인의 시선으로,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명예 신분을 받은 화인의 사치스럽지만 공허한 삶을 묘사한 작품이다.「남겨진 진주」는 작중 화자가 역사에서 사라진 인도묘의 진주를 찾아서 말레이시아·태국 국경지대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진주'는 한 종족의 '희망과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역사를 문학적으로 다시 쓰고자 한 것이다.「화원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퇴직한 말레이인 소방대원이 집 뒤의 공터에 화원을 만드는 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각 직업별·종족별 이기심과 무관심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32) 莊華興,「誰的馬華文學研究? 評: 許文榮『南方喧嘩: 馬華文學的政治抵抗詩學』」,『臺灣東南亞學刊 3(1)』, 2006, pp.105-109. 장화싱 교수는 쉬원룽의 저서를 일례로, 중국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을 중국적 문화 정체성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말레이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한 독창적 이해가 부족하며, 말레이인과 화인의 관계를 주도 민족(주체) 대 종속 민족(객체)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화인들이 화문을 대대로 익히고 유지해 온 역사는 깊다. 그 중에서도 근대식 학제에 따른 교육체계를 마련한 역사는 중국의 근대식 교육제도로의 전환과 시기적·내용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33] 그러나 화인들의 화문 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민국가가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인 우여곡절을 겪기 시작했다.

말라야 연방 시기를 지나 1957년 8월 31일, 100여 년의 영국 통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말레이시아는 세계 질서에서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nation-state)가 되었다. 비록 말레이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말레이연합민족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1946년 5월 11일 창당, 약칭 UMNO)가 집권당이 되었지만, 다종족 에스닉의 공민화·경제상의 생산량 증대·기회 분배·향촌 경제 살리기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 '국민전선'이라는 연맹 정부(말레이시안 화인협회(MCA)와 말레이시안 인도인의회(MIC)와의 협치 체제)'를 구성했다. 민족국가적 정당의 탄생은 화인들이 현지의 '공민권'이 있어야지만 참정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종전 후 형성된 세계 냉전 분위기가 중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은 1955년 만룽(萬隆)회의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34] 그 결과 말레이시아 화인들은 오직 현지 민족국가의 법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현지화하고 신흥 국가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적극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1961년 말레이시아 관방이 1956년 신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라작(Razak) 보고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압둘 라작(Abdul Razak, 1922-1976)의 이름을 딴 보고서』에 기초한 '1961년 교육법령(Education Act, 1961)'을 반포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화문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만 정식으로 인정된다. 신생 국가 말레이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교육을 통한 '국민'을 형성해야 하는데, 중고등 과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교학 용어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12편 제152조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기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금지당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35] 사실 관방의 입장에서 화인과 인도계 에스닉의 모어 학습권과 사용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후 화교소학을 졸업한 화인 학생들의

---

33) 何啓良外編, 『馬來西亞華人史新編(第2冊)』, 馬來西亞中華大會堂總會出版, 1998, pp. 215-217.
34) 黃錦樹, 「"此時此地的現實"? - 重探'馬華文藝的獨特性'」, 『華文文學』, 總第145期, 2018.02, p.28.
35) 李寶鑽, 「馬來西亞華文獨立中學教育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p.127. 리바오쫜에 의하면, 화인 단체조차 민감한 문제로 생각하여 말레이시아 중·고등 교육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고 한다. 리바오쫜의 연구는 오직 공개된 자료와 신문 보도를 수합하여 수행되었다.

진로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국민중학(National Secondary School)은 국가 교육체계의 국민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모든 경비를 정부가 부담하며, 국민중학의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다. 국민형 중학(National Type Secondary School, 2003년부터 '화문중학'이라 칭함)은 교학 언어로 '영어'를 사용했는데 1982년 이후 모든 국민형 중학이 '말레이어'를 교학 언어로 통일하게 되었다. 국가 교육체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정부는 부분적으로만 경비(교사 월급·교육 행정비·전기세·수도세)를 보조해 준다. '화문'은 정식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 15명의 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화문반'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방과 후나 토요일에 수업하도록 안배되어 있다. 국민형 중학은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음에도 말이다. 2003년 기준 전국에 78개의 국민형 중학이 있다. 국민형 중학의 교장직은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통일해서 임명·파견하며, 국민형 중학의 교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국민형 중학은 '말레이어 교육'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을 통합시키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말레이 종족을 달래어 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과도 중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중학(Chinese Independent School)은 주요 교학 언어를 '화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사립중학에 속한다.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화인 문화를 유지·발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인 사회의 공공사업 중 하나로 인식된다. 사실상 국민형 중학의 일부 자금과 독립중학의 모든 자금을 화인 사회에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연간 기부금, 부유한 화인·정치인의 기부금, 동향 회관(會館)의 기부금, 관혼상제 기금으로도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독립중학회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말라카 화인 화장장(말라카의 '중화(中華)독립중학'의 경우) 같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초빙되어 오는 교사의 월급도 전자 2개의 학교보다 훨씬 적어, 교사 수급도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13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역에 60개의 독립중학이 있다.[36]

1961년 법령이 반포되자 화인 학부모들은 약간의 잡비(실습비·교재비·학교 시설 보수비)만 부담하면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민형 중학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화문소학 또는 타밀어(Tamil language; 인도 남부 지역의 드라비다어에 속하며, 말레이시아에 이주 정착한 인도계 에스닉의 주요 언어) 소학 출신자들의 중학 과정 진학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곧 '주요 교학 언어'를 바꾼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법령 규정에 근거하면, 화인과 인도계 소학교 졸업생은 '예비반 과정(Remove Class) 1년'을 이수해야지만

36) 李寶鑽,「馬來西亞華文獨立中學教育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pp.132-137.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할 수 있었다. 예비반을 면제받으려면 '초등 6년 평가 시험(Ujian Pencapaian Sekolah Rendah)'에서 말레이어를 C이상 받아야 했다.[37]

1967년 3월, 국회에서 '국어법안(National Language Bill)'이 통과되어 말레이어(Bahasa Malaysia)가 국가의 유일한 국어[38]이자 관방어가 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말레이어 학교가 영어 학교를 대신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국민형 중학은 전면적으로 말레이어를 주요 교학 언어로, 영어는 단지 필수 어문 교과목 중 하나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말레이어 시험(또는 캐임브리지 영어 시험(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s))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말레이시아 화인들이 '화어'를 읽고 쓰지 못하거나 전혀 말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39]

대학을 졸업한 1975년 27세가 되던 해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한 샤오헤이는 1980-90년대에 국민중학의 교사를 거쳐 국민형 중학의 부교장·교장을 엮임했으며, 2008년부터 11년간 짓신 독립중학의 교장으로 교직 생활을 마쳤다. 국민형 중학에 재직할 당시, 교정·담장·식당 등의 낡은 학교 시설 보수와 행정제도를 개선한 공으로 교육부의 상을 받기도 했다.[40]

『여정의 종결』에 수록된 말레이시아 교육제도의 변천을 소재로 한 작품에는 「암담한 대화재(黯淡的大火)」(창작 연대 미상, 『悠悠河水』 수록), 「어느 국민중학 학생의

---

37) 예비반 면제조건은 1987년, 1988년, 1991년을 거쳐 완화되었으며, 1995년의 조건이 위와 같다. 현재는 중학교 승급제도가 완화되어 1996년부터는 60%의 화교소학 졸업생이 바로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통계는 1980년대보다 10배 폭증한 것이다. (李寶鑽, 「馬來西亞華文獨立中學教育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p.126.)

38) '국어'는 유럽의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형성된 것으로, 국가가 정하고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인민에게 주입하는 언어이자 인민을 국민으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언어를 지칭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는 '공용어'인데, 공용어는 한 국가 안에 복수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언어를 지칭한다. 오늘날에도 무역·상공업·금융업에서는 말레이어보다 영어가 더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 (王國璋, 「馬來西亞的多語現實和馬華的語言困局」, 『思想』, 第28期, 2015, p.180.) 화인 학자들의 자료에는 타밀어문과 화문의 처지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독립 후 말레이계가 기존 '영어'의 지위에 '말레이어'를 올려놓고자 했던 동기는 따로 있다. 영국령 연방 시절, 말레이어는 오직 코란을 읽을 때만 사용했으며 방과 후에야 말레이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영어가 가능한 말레이인이 많지 않아 영어가 가능한 인도인과 실론 섬 출신의 타밀족이 고급관료로 임명되었다. 이주한 인도계는 인사권을 장악하고 고향의 친족을 불러와 신설 보직에 그들을 임명했다. 마하티르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1975년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때,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마하티르 지음, 정호재 외 옮김, 『수상이 된 외과의사』, 동아시아, 2012, pp.99-100, p.327.)

39) 2010년 기준, 화인 자제들의 96%가 화문소학에 진학하지만 그중 70%가 국민중학, 20%가 국민형 중학, 10%가 독립중학에 진학한다. (王國璋, 「馬來西亞的多語現實和馬華的語言困局」, 『思想』, 第28期, 2015, p.182.)

40) 「[老師心故事] 执教鞭摇笔杆, 陈奇杰以心待人」, 『東方ONLINE』(2019.01.29.) 참고.

죽음一名國中生之死」(창작 연대 미상,『悠悠河水』수록),「10월 27일의 문학 기록과 기타(十·廿七的文學紀實與其他)」(1989.12,『悠悠河水』수록)가 있다.

「암담한 대화재」는 '1961년 교육법령'이 반포되기 전, 화문중학을 '국민형 중학'으로 개편해야 하는 일에 직면한 화인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중 화자 황쭈야오(黃祖耀)의 부친 황정리(黃正立)는 31년 전 단수이 마을(淡水鎭) 췬셴(群賢)중학의 교장이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화재로 학교 숙소에서 함께 살던 아내까지 잃은 뒤, 고향을 떠나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부모를 함께 안장해 주기 위해 모친의 유골을 수습하러 온 황쭈야오는, 31년이 지나도 당시 모습 그대로 변한 것이 별로 없는 단수이 마을과 췬셴중학을 둘러보았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숙소는 없어졌고, 산비탈 아래 새로운 3층 건물의 학교가 들어서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가 식구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둘째 사촌 형은 췬셴중학의 교우회 대표였는데, 이제는 화문을 전혀 모르는 비화인 학생까지 입학시켜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유골 수습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는 쭈야오에게 후한광(胡漢光) 선생이라는 사람이 벌레 먹은 정장본 장부를 하나 건네주었다. 후한광 선생은 쭈야오의 부친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화문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당시의 교장 회의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을 둘째 사촌 형의 친구가 배웅해 주면서, 당시 황정리 교장 선생님만 학생 편이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31년 전 췬셴중학의 개편을 앞두고, 이사회와 교장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페낭에서 최초로 개편한 화문중학의 사례를 들며, 하루 속히 교육부에 전환을 신청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교장이었던 황정리는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진정시키려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췬셴중학 학생들은 교학 언어의 (영어로의) 전면 개정이 '몸을 파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시위했고, 정부에서 파견한 진압대는 학생들에게 사정없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심지어 체포해 가기도 했다. 이때 큰 충격을 받은 쭈야오의 큰 외삼촌은 화어로 '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키는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부친의 회의록에는, 1959년 3월 1일 일요일 밤 8시 이사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재정 문제를 돌파하려면 교육부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며, 학생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육부가 개편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어서 교장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장 황정리는 학생들의 모어에 대한 애정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진압

대의 물대포를 맞고 있으면 교사는 먼저 물대포를 막는 것이 순리라고 대치했다. 이사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안건은 부결되었고, 황정리 교장은 이사회와 계속 충돌할 수 없으니, 월말 전에 학교를 떠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약 일주일 뒤 3월 9일 월요일 밤 9시, 학교에 대화재가 발생했다. 다음날 황 교장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바로 사직했다. 이후 항간에는 황 교장이 학교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회의록에 3월 22일 이사회가 새로운 교장 초빙 안건을 논의한 흔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작품은 마무리가 된다.

학교 교육이 언어 습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41] 언어는 사유의 담지체이기 때문에,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진학의 기회까지 막아버린 말레이시아 당국의 교육 법령은 이후 말레이시아 화인들을 '반쪽의 다언어 구사자(semi-lingual)'로 만들어버렸다.[42] 개정된 교육 법령에 따르면, 말레이어 성적이 불합격이면 '말레이시아 고등교육 자격시험(Sijil Persekolahan Malaysia)'에 참여하지 못하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게다가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와 갈라선 뒤로, 캐임브리지 영어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유학을 위한 출국이 가능했다. 「암담한 대화재」에서와 같이, 당시 화인들에게 화문 교육의 맥을 끊는 것이 '생존의 위협'처럼 다가왔던 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유일한 화문 대학이었던 '난양대학(南洋大學)'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말레이시아 화인들은 수십 년간 화문을 공용어로 지정해줄 것과 화문 대학 설립 허가를 교육부에 요청했다.[43]

이러한 화인들의 바람을 소위 '중화 문명'에 대한 충성이나 미련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말레이시아 현대사에서 오점으로 남은 '오페라시 랄랑(Operasi Lalang, 198

41) 이중언어 사용자를 연구한 결과, 어느 한 언어의 유창한 사용은 주어진 환경이나 맥락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한다. (변지원, 『두 개의 혀』, 에피스테메, 2016, pp.39-60.) 언어는 '접촉'의 산물이기 때문에, 화인들의 모어가 아무리 '화어'라 하더라도, 공적·사적 영역에서 말레이어나 영어와의 접촉 빈도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그 화인은 '화어'가 아닌 언어로 사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42) 王國璋, 「馬來西亞的多語現實和馬華的語言困局」, 『思想』, 第28期, 2015, p.192. 왕궈장은 말레이시아 화인들이 겉으로는 상황에 맞게 다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 종류의 언어로도 깊이 있는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거나 정밀한 글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 출신 화문 작가 중 리융핑(李永平)·장구이싱·황진수[본고가 추가했음]처럼, 화문이 외국어인 독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치하게 긴 호흡의 화문 글쓰기가 가능한 작가는 정말 드물다. (黃錦樹, 『馬華小文學』, 麥田出版, 2015, p.109.) 장구이싱 또한 타이완에 거주하는 환경 덕분에 자신의 글쓰기가 성장했으며 지속적인 창작이 가능하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踏查與書寫: 張貴興·徐振輔(台積電青年文學論壇)」(2021.10.08.), 聯合報youtube 채널 참고)

43) 何啓良外編, 『馬來西亞華人史新編』(第2冊), 馬來西亞中華大會堂總會出版, 1998) pp.76-79, pp.255-288.

7.10.27)'의 발단에도 화문 교육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말레이시아 내부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10월 27일의 문학 기록과 기타」는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국화문학(國花文學)』소속 기자 두 명이 작가 '샤오헤이'를 찾아와 '후한성(胡漢生)'이라는 교수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후한성은 신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권익' 즉, 화문 교육의 정상화에 관한 평론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 1987년 7월 당국이 화문소학 고위직에 화문을 전혀 모르는 자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위에 나섰다. 이후 말레이인 대학생들의 화인 반대 시위까지 일어났고, 각 에스닉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적나라한 선동적 언사가 난무해져, 당국은 국가보안법(ISA)을 발동했다. 경찰국은 톈허우궁(天后宮)의 집회에 참여한 UMNO를 포함한 모든 정당의 하원의원, 화인 교육 전문가, NGO의 저명 인사들을 총격 진압하여 106명을 체포했으며, 정부 당국은 영문·화문·말레이어 3대 신문의 인쇄와 발행을 신속하게 금지시켰다. '오페라시 랄랑'은 근현대 이후 누적된 말레이 종족 중심적 정책의 한계가 한순간에 극단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집권 당국은 물론 정당 정치인·경찰·종족주의자·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44] 「10월 27일의 문학 기록과 기타」의 작중 화자는 작가 샤오헤이 본인인데, 친구 시인의 시를 빌어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전달하고 있다.

> 하나
> 또 어떤 이가 우리더러 이주민이라고 하네.
> 우리가 여전히
> 또 다른 토지를 그리워한다고
> 우리가 여전히
> 또 다른 탯줄을 숨기고 있다고 하네.
> ……
> 둘
>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하네, 우리는 아닌데.
> 우리가 지나(支那)인이라고 하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 우리가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하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말해줄까
> 우리가 화인이라고 하네, 어느 나라의 국민일까
> 우리는 가장 풍파가 많은 과거와
> 가장 황량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p.135.)

44) 마하티르 지음, 정호재 외 옮김,『수상이 된 외과의사』, 동아시아, 2012, pp.545-553.

당시 화문의 공용어화를 요구했던 운동가와 교육자들은 “당국이 공용어를 무기로 우리를 소멸시키고자 하니, 우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똑같은 무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화문이 공용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수호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또한 “영문은 외국어이니 말라야 연방의 공용어로 어울리지 않는다. 말라야의 공통 언어는 반드시 말라야 민족의 언어여야 한다. 첫 번째는 말레이어, 두 번째는 화문”(1955)임을 강조했다.[45] 타종족의 모어와 달리, 화문은 항상 그 뒤에 중국이 있고 역사가 깊으며, 추상적·학문적 사유를 할 수 있고 기록·전승되는 문헌 자료까지 방대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의도적으로 더 배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46] 1990년대까지 검열을 거친 뒤에야 신문 기사가 게재될 수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화문 신문이 말레이어 신문보다 더 점유율이 높다는 점도 흥미롭다.[47]

화인들은 “말라카 왕조의 역사와 술탄 정치 체제의 연속성을 부정”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도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함께 말레이시아 건국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1983) 해달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48]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화인들은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사용자들처럼 ‘나라 속의 나라’, ‘소수 에스닉의 독립국가’[49]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화문의 공용어화 요구와 공식 교육 체계 내의 화문 대학 인정은 말레이시아 헌법에 입각한 평등한 ‘문화 공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샤오헤이는 이 문화 공민권이 종족 방어적인 것으

45) 許德發, 「馬華社會之文化權利及其文化再生産」, 『思想』, 第39期, 2020, p.106. 인용문은 화문교육운동가 린롄위(林連玉)의 주요 논지이다. 린롄위에 관해서는, 김주아, 「말레이시아 화문교육에서 지식인의 역할: 林連玉(1901-1985)의 생애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95집, 2021를 참고하시오.

46) 부미푸트라를 추진했던 마하티르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 시절부터 화인들의 사회·경제·교육 수준이 평범한 말레이인들과 비교했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화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말레이 쪽으로 기울여 시작해야 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발도상국 중 어느 나라도 정부가 이만큼 교육제도에 신경 써 줄 수 없다고 자부했던 마하티르는, 항상 화인들의 교육열을 말레이인과 비교했으며, 아무리 화인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말레이인들이 화인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하티르 지음, 정호재 외 옮김, 『수상이 된 외과의사』, 동아시아, 2012, pp.709-724.) 1986년, 오페랑시 랄랑이 일어나기 1년 전만 해도, 마하티르는 조호루 주 ‘중화중학(中華中學; 독립중학)’을 방문한 뒤, ‘모어의 지속적인 전승’과 ‘화인들의 우수한 말레이어 성적’을 공개 연설에서 언급할 정도였다. (李寶鑽, 「馬來西亞華文獨立中學教育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p.142.)

47) 2013년 기준, 화문 신문이 말레이시아 신문 총발행량의 40%, 말레이문과 영문 신문이 각각 3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화문 신문은 화문이 공용어가 아닌 상태에서 화인들의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세 개의 기둥(화인단체·화문학교·화문신문)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王國璋, 「馬來西亞的多語現實和馬華的語言困局」, 『思想』, 第28期, 2015, p.184.)

48) 許德發, 「馬華社會之文化權利及其文化再生産」, 『思想』, 第39期, 2020, p.107.

49) 문영석, 「국가 안의 국가?: 퀘벡 분리주의의 전망」, 『국제·지역연구』, 18권 4호, 2009겨울, pp.135-164. 사실 ‘다문화사회(multiculturalism)’는 캐나다의 퀘벡 주가 분리 독립을 원하던 것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로 발현하기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변혁 가능성을 향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 「어느 국민중학 학생의 죽음」이다.

> 오늘, 우리는 수많은 17세 아이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가 번영할수록 더 많은 17세 문제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락 장소·쇼핑 센터에서 무단결석을 한 무리 지은 학생들을 언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고 거친 말을 내뱉는다. 기본적으로 주변인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학생이 어찌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 학교는 이미 우애·인내·양보와 이해심·상호 부조를 중시하지 않는 장소가 되었으니, 사회에 풍기를 어지럽히는 청소년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p.225.)

> 이번 불행한 사건에 대해, 단닝 마을(淡寧村)의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학교 당국과 경찰이 협조하여 학교 기강을 정돈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 내의 유일한 개정 화문중학이 더 모범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이곳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p.227.)

> 청소년의 비밀클럽 결성 풍조는 이미 오래되었고, 화인들의 격리 마을(新村)에서는 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들이 화인 마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특히 화문중학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실이다. 본인의 친구 한 명이 단닝 마을에 살고 있어서 자주 그 마을을 다녀가는데, 모두 그 마을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제 신문에서 그 학교 교사들이 비밀조직(私會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치가 떨렸다. (p.228.)

> 그 학교에 새 교장이 부임한 이래, 이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장이 화어를 할 줄 모르고 화문을 읽고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 이사회의 또 다른 성원인 쉬라이시(許來喜)는 회의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했다. 만약 교장이 화문을 이해했다면, 비밀조직을 처리할 때 영리한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유혈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pp.229-230.)

「어느 국민중학 학생의 죽음」은 단닝 마을 화푸(華福) 화문중학의 졸업반 학생 리서우제(李守傑)가 학교 잔디광장에서 2년 전에 학교를 그만둔 동창생 4명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은 1차 신문기사 → 학생 투고 → 2차 사건 경과 기사 → 학부모 투고 → 3차 학교 내부 문제에 관한 기사 → 다른 신문에서 이사회와 식당 업체의 결탁 보도 → 1차 독자 투고 →

교사 투고 → 2차 독자 투고 → 1차 보도를 한 신문사의 사건 정리 기사, 이렇게 진행되어 기법의 독창성 측면에서 많이 회자된다. 각각의 입장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의 진실은 비행 청소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국민형 중학의 문제점과 화문을 하지 못하는 화인을 대하는 고까운 시선, 교육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한 이사회가 지역 정치인과 결탁하고 친인척 납품 비리를 저지르는 등 화인 사회의 내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학생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국민형 중학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신경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형 중학·독립중학으로 나뉘던 초창기에는 70%의 학생이 중학 입학시험에 탈락했으며, 독립중학에도 수용되지 못한 학생들이 화인 사회의 문제로 부상했다. 학생수가 급감했던 독립중학은 화인 낙제생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한 수용했지만, 이 때문에 한동안 정식 학교가 아니라 '보습 학교'로 불렸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50] 또한 독립형 중학이 도덕 교육보다 교과 성적에만 신경을 썼던 것도 대학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문을 보면, 단닝 마을이 '화인 강제 격리지역'으로서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국민형 중학에 보냈는데, 학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학부모·학생이 다 알고 있는 교내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모르쇠 하는 태도로 일관함을 알 수 있다. 설사 학교가 이 문제를 영원히 덮더라도, 화인 마을의 청소년들은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다.

네 번째 인용문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대에서 '황색 피부를 한 백인(紅毛直; '붉은 털을 가진 백인'이라는 데서 유래)'으로 불리는 화인들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영어학교·국제학교를 다니다 영미권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의사·변호사·고위 공무원·전문 엔지니어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51] 비록 화어는 할 줄 모르지만, 화인의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을 잘 이해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엘리트 신분으로 화인 사회와 연결되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국민중학 학생의 죽음」에서 이 '황색 피부를 한 백인' 교장이 특정 업체의 식당 운영 독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공개 입찰한 뒤 다른 업체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뀐 업체가 이사회와 대립하는 학부모협회(家教協會) 쪽의 사람이었다. 점입가경으로 이사장의 정치적 뒷배와 학부모협회의 정치적 뒷배는 서로 대

50) 何啓良外編, 『馬來西亞華人史新編』(第2冊), 馬來西亞中華大會堂總會出版, 1998, pp.268-278.
51) www.sinchew.com.my/20190629/红毛直-郑毅. 비하하는 욕설로 표현할 때는 '백인 똥을 먹는 놈(紅毛屎)'이라 하기도 한다.(http://shuangyubuluo.blogspot.com/2008/01/blog-post_07.html)

립하고 있는 당이었다.[52] 새로 부임한 교장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이것이 화인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자 '서양식'이라 비난받게 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것보다 누구 하나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화인들의 관행이라면,「어느 국민중학 학생의 죽음」의 결말 역시 이렇게 관행대로 마무리되었다. 죽은 학생의 할아버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사회와 교장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봤으며, 화푸 화문중학에 무슨 '학생 폭력조직'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오보이자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죽은 학생이 왜 동창들에게 살해당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말이다. 풍자적 여운 속에 샤오헤이의 날카로운 자아 반추하기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샤오헤이는 다원 사회의 작가일수록 더 전체적으로 현상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며, 작가는 정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족의 시련이나 고통에 격정적으로만 반응하여 각 당의 지도자들처럼 선동만 일삼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 오해를 사더라도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마지막에 자신의 종족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이다(p.130). 샤오헤이는 앞으로의 세대가 한층 더 열린 마음으로, 각 종족의 특수성을 서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말레이시아를 '다원 사회'로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샤오헤이의 '다원 사회'에 대한 생각은, 1986년 대선 전야를 배경으로 한「전날 밤(前夕)」(1987.6,『前夕』수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신구 화인 세대의 중국성(Chineseness)에 대한 생각과 화인 정치인의 사회 기여도에 관한 의견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의 작중 화자인 막내딸(대학생)의 남자 친구의 입을 통해서, 다원 사회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 기존 정체성의 고수나 패권을 가진 종족에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6세기 이래 다양한 종족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은 근대 역사가 강제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평등한 차별적 대우 및 이에 대한 복수심을 반복해서 표출하는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 자민족 공동체의 폐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족 내 '이방인-되기'이다. 나아가 타문화에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부터라도 화인이 자기 에스닉에서만 맴도는 관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피부색·언어·출

52) 실제로 화인들이 화문의 공용어화를 요구하고 화문교육의 체계화를 주장할 때, MCA를 비롯한 화인 정치인들은 방해만 될 뿐 화인 사회에 공헌한 바가 없었다. (「談馬來西亞的華文中學改制」(2013.05.01.), web.archive.org/web/20161228200022/https://xtarsam.wordpress.com/2013/01/05/谈马来西亚的华文中学改制/)

신·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다(pp.75-99). 그렇다면 샤오헤이가 생각하는 '다원 사회'는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전 세대보다 풍요로운 정체성을 구상한다는 것은, 종족주의에 휘말려 어느 한 에스닉의 영웅이 되어 다른 민족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을 중국문학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지류 중 하나로 볼 경우, 샤오헤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은 한 줌에 불과하겠지만,[53] 이 소박한 문화적 자산으로 꿈꾸는 그의 비전은 결코 소박하지 않다고 하겠다.

4. 나오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말레이시아에게 방대한 시장 중의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집권당이든 화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당이든 선거 기간마다 화문교육에 '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집권당에게 밉보일까 봐 자신들의 의석 보존에 더 집중했던 MCA 정치인들도 전국 규모의 '독립중학을 위한 모금'에 나서기도 한다. 화인 사회의 노력 덕분에 '국민형 중학'에는 말레이·인도계 학생도 진학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도 각 에스닉의 어문 학습을 관용적으로 대하고자 하고 있다. 근현대 시기를 거치면서 각종 이권과 패권 확보에 있어 자민족 중심주의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폭력적으로 표출되었던 말레이시아가 앞으로 각 종족의 언어적·종교적·문화적 자원을 발전적으로 교류·수용하는 '다원 사회'를 향해 나아갈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거장이 부재하고 문화적 유산이 곤궁한 '작은 문학(small literature)'[54]은 문학 자체로 독자를 끌어들이기 쉽지 않다. 그 창작 환경 자체가 가지고

---

53) 양세욱, 「싱가포르의 다중언어사용과 유산어로서의 중국어」, 『중국학』, 제75집, 2021, pp.321-338. 툰구 압둘 라만이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보르네오 섬까지 말라야 연방에 포함시키고자 했을 정도로, 싱가포르의 화인 인구수와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양세욱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싱가포르 화인 사회에서 중국어는 유산으로만 남아있을 뿐 주요 언어가 영어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샤오헤이의 경우, '모더니즘적 풍격'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작가로 평가받지만, 항간의 예상과 달리 포크너·헤밍웨이·카프카 같은 외국 작가가 아니라 어릴 때 읽은 루쉰·저우쭤런·위다푸·선충원의 유산이 자신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陳鵬翔, 「論小黑小說書寫的軌跡」, 『馬華文學批評大系：陳鵬翔』, 元智大學通識教學部, 2019, pp.50-53.)

54) 카프카가 1911년 12월 25일 일기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들뢰즈와 가타리는 '소수문학(minor)'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진은영, 「문학의 아나크로니즘: '작은' 문학과 '소수'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67집, 2012, pp.273-301.) 본고가 보기에, 말레이시아 화문 문학을 '소수문학'으로 명명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작은 목소리'를 수합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

있는 정치 종속성 때문에 문학 내적 논리에 충실한 미학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적 성취가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음에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학도 이만큼 창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문학'이라서 연구할 가치가 없다거나 '작은 문학'이라서 문학적 성취도가 낮다고 폄하하기 전에, 그 '작은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귀를 먼저 훈련시켜 보는 것도 문학을 향유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언제나 다방면으로 인간을 새롭게 해주지 않는가?

【참고문헌】

<단행본>
마하티르 지음, 정호재 외 옮김,『수상이 된 외과의사』, 동아시아, 2012.
미우라 노부타카 외 엮음, 이연숙 외 옮김,『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0.
변지원,『두 개의 혀』, 에피스테메, 2016
서경식,『언어의 감옥에서』, 돌베개, 2011.
潘碧华,『馬華文學批評大系: 潘碧華』, 元智大學中國語文學系, 2019.
黃錦樹,『馬華小文學』, 麥田出版, 2015.
何啓良 外編,『馬來西亞華人史新編』(第2冊), 馬來西亞中華大會堂總會出版, 1998.
史書美,『反離散』, 聯經出版, 2017,
小 黑, 『結束的旅程: 小黑小說自選集』, 台灣秀威, 2012.
鍾怡雯,『馬華文學史與浪漫傳統』,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9.
濱下武志,『華僑·華人と中華網』, 岩波書店, 2013.

<논문>
남민우,「전후 박인환 시의 영웅주의에 대한 성찰과 지양 양상 연구」,『국어교육』, 제150권, 2015.
문영석,「국가 안의 국가?: 퀘벡 분리주의의 전망」,『국제·지역연구』, 18권 4호, 2009겨울.
양세욱,「싱가포르의 다중언어사용과 유산어로서의 중국어」,『중국학』, 제75집, 2021.
이영준·이황,「한국사회에서 영웅의 왜곡과 (재)소환」,『글로벌문화콘텐츠』, 제45호, 2020.
진은영,「문학의 아나크로니즘: '작은' 문학과 '소수' 문학을 중심으로」,『인문논총』, 제67집, 2012.
함규진,「일제강점기 전후의 영웅 담론: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의 작품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제28권3호, 2019.

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카프카가 사용한 단어 그대로 '작은 문학'이라 지칭하겠다.

안춘분,「孔子의『春秋』大義思想 연구」, 성균관대 유학과 박사논문, 2015.
陳　劍,「冷戰與東南亞共運的興衰: 馬共革命沈浮錄」,『冷戰國際史研究』, 2009.
黃錦樹,「"此時此地的現實"? —— 重探'馬華文藝的獨特性'」,『華文文學』, 總第145期, 2018.02.
林春美,「小黑的歷史修辭與小說敍事」,『華文文學』, 總第119期, 2013.06.
_____,「誰方的歷史: 黎紫書的「希斯德里」」,『中外文學』 第36卷第1期, 2007.
彭志恒,「談小黑的小說」,『台港與海外華文文學評論和研究』, 1996年第3期.
欽　鴻,「別出心裁的嘗試: 讀小黑的小說」,『華文文學』, 1994.02.
王國璋,「馬來西亞的多語現實和馬華的語言困局」,『思想』, 第28期, 2015.
許德發,「馬華社會之文化權利及其文化再生産」,『思想』, 第39期, 2020.
于洪君,「馬來亞共産黨及其武裝鬪爭的興起與沈寂」,『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15年第2期.
莊華興,「誰的馬華文學研究? 評: 許文榮『南方喧嘩: 馬華文學的政治抵抗詩學』」,『臺灣東南亞學刊3(1)』, 2006.
朱崇科,「論馬華作家小黑作品中的馬華話語」,『文藝爭鳴』, 2017.08.
李寶鑽,「馬來西亞華文獨立中學教育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潘婉明,「一個新村,一種華人?——重建馬來(西)華人新村的集體回憶」, 國立暨南國際大學碩士論文, 2001.

<기타자료>
「日新獨中陳奇傑校長退休歡送宴」,『光明日報』(2019.11.23.), https://guangming.com.my/tags [2021.10.25]
「順光: 華玲會談破裂主因, 馬共拒無條件投降」,『星洲网』(2013.09.17.), https://www.sinchew.com.my/?p=2158764 [2021.10.30]
「[老師心故事] 执教鞭摇笔杆, 陈奇杰以心待人」,『東方ONLINE』(2019.1.29.) [2021.10.25]
「踏查與書寫: 張貴興·徐振輔(台積電青年文學論壇)」(2021.10.08.), 聯合報youtube 채널 [2021.10.20]
「談馬來西亞的華文中學改制」(2013.05.01.), web.archive.org/web/20161228200022/https://xtarsam.wordpress.com/2013/01/05/谈马来西亚的华文中学改制/ [2021.10.30]

<인터넷 자료>
University of Malaya, https://www.um.edu.my/history [2021.10.25]
馬華文學電子圖書館, https://www.mcldl.com/author/read/127 [2021.10.25]
www.sinchew.com.my/20190629/红毛直-郑毅 [2021.11.02]
http://shuangyubuluo.blogspot.com/2008/01/blog-post_07.html [2021.11.0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小黑, 馬來亞共產黨, 作爲雙言現象的華文, 國民型中學, 小文學
	영문	XiaoHei, Malayan communist, Huawen as diglossia, National type secondary school, Small literature by Kafka

A Study on XiaoHei's *The End of The Journey*

Koh Woon-Sun

XiaoHei is a representative writer which is the ethnic Chinese in Malaysia and creates using Huawen in the 1990s. The subject of analysis of this study is *The End of The Journey*, which contains the representative work that he published the most works and received the attention of critics. The value of XiaoHei's work does not lie in forming public opinion against Malaysia's official policy or elaborately embodying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ethnic Chinese. XiaoHei's work has meaning of critically looking at the 'collective self of the ethnic Chinese' by utilizing environmental resources such as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is was accomplished in a poor environment with a little inheritance of Chinese culture and had to create in minor languages not official languages. In addition, he didn't replicate China's cultural heritage in the same way, but reinterpreted it and created original works. This is the result of trying to become a stranger in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 Although it is created in Huawen, it proposes a much more open transformation than equating it to China's cultural identity. This is the significance of "small literature", that is, literature created in an environment where there is just a handful of cultural heritage and no outstanding master.

저 자	고운선 / 高韻璇 / Koh Woon-Su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11.20.	심 사 일	2021.11.26.	게재확정일	2021.12.18.